

광주 김지현 양궁서 5관왕 등극

탁구 金 3개 추가...전남 역도 김명영 3관왕



광주 양궁 김지현(지체장애)이 제 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서 5관왕에 올랐다.

김지현은 대전에서 열린 대회 4일째인 9일 남자 권아운드 50m, 30m, 개인종합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며 전날 60m, 70m와 함께 금메달 5개를 목에 걸었다.

광주선수단은 9일 금메달 16개와 은메달 17개, 동메달 16개를 추가하며 총 금 31 · 은 41 · 동 42개로 목

표 종합 7위를 향해 나아갔다.

이날 광주 양궁은 남자 리커브 50m 개인 ARST에서 김용욱이 금메달을 김홍규, 이명구, 김용욱 등이 남자 리커브 단체전 ARST/ARW2(리)에서, 김관숙이 여자 리커브 개인전 ARST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내며 이날 총 6개의 금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광주는 다양한 종목에서 금메달이 쏟아져 나왔다.

탁구 종목에서는 김영건이 개인전과 복식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남자복식 TT1의 노종민, 조재관이 금을 추가했으며 육상 트랙 남자 400m T12에서 이경대가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수영 여자 50m 평영 SB7의 손부자, 배드민턴 남자 단식 OPEN (좌식) 박상준, 휠체어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3/4 등급(A)의 김종덕, 휠체어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2등급(B)의 박인수, 배드민턴 여자 단식 OPEN (좌식)의 백은주, 파크골프 여자 개인전 PGST 1의 김옥금 등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김관숙(지체장애)은 여자 리커브에서 은메달 3개를 획득했고 파크골프 개인전 PGW 강대웅(지체장애)을 포함한 7종목 15명의 선수들이 은메달을 보냈다.

수영의 문병남(지체장애)이 남자 50m, 100m 평영 SB8에서 2개의 동메달을 획득하고 톤볼, 육상, 펜싱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따는 등 광주는 이날 총 49개의 메달을 쏟아냈다.

한편, 남자 지체 일부부 축구선수단은 작년 우승팀 서울을 상대로 4-3의 기적같은 역전승을 거두며 10일 충북과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

전남은 9일 역도에서 3관왕이 탄생했다. 역도 남자 -90kg 절단 및 기타장애(OPEN)에 출전한 김명영은 벤치프레스종합과 파워리프팅, 웨이트리프팅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유도 남자 시각 -73kg의 윤상민이 금메달을 추가하며 전남은 이날 금메달 4개와 은메달 7개, 동메달 12개로 총 금 12 · 은 19 · 동 25개를 기록했다.

전남은 역도 남자 -82.5kg 절단 및 기타장애(OPEN)의 이종배가 은메달 3개를 얻어냈고 휠체어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3/4등급의 이연과 탠스스포츠 혼성 스탠드 OPEN 비엔니스왈츠OPEN(W/C)의 김은정 · 김종갑, 탁구 남자 복식에서 이정호 · 한관덕, 문현풍 · 황교인 등이 은메달을 추가했다.

신광호 기자 sgh@namdnews.com

KIA 김종국, 그라운드 떠난다

15일 은퇴식...아들 준영군과 시구 · 시타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종국(37·사진)이 오는 15일 광주 두산전에 앞서 은퇴식을 갖고 15년간 정들었던 그라운드를 떠난다.

이날 은퇴식은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지도자의 길로 들어선 김종국의 야구 인생을 기리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인회, 현역시절 하이라이트 영상물 상영, 기념물 전달식, 은퇴사, 그라운드 작별 인사, 관중 및 선수단과 인사, 시구 및 시타 등의 행사로 진행된다.

사인회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약 30여분간 타이거즈 삼영포토존에서 열릴 예정이고 경기 전에 장내 전광판을 통해 15년 동안 그라운드를 종횡무진했던 하이라이트 영상물이 상영된다.

이어 김종국과 부인 최세훈씨 등 가족이 입장하고 손금으로 만들어진 야구공과 유니폼 액자 등 기념물 전달식이 진행된다.

김종국이 은퇴사를 낭독하고 그라운드 작별을 위해 2루 베이스에 입맞춤을 한 뒤 관중들과 선수단에 작별 인사가 이어지며 김종국은 관중들에게 작별인사로 사인볼 16개를 팬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선수단의 행가래가 이어진다. 이날 시구 및 시타는 김종국과 아들 김준영군(7)이 실시할 예정.

한편, 지난 1996년 해태에 입단한 김종국은 2009시즌까지 통산 1천359경기에 출장해 1천86안타 타율 0.247, 66홈런, 429타점, 604득점, 254도루를 기록했으며 지난 4월 플레잉 코치로서 2군에서 선수를 조련해 왔다.

신광호 기자 sgh@namdnews.com



이영표 “이란전 패배는 모두 내 책임”

이란전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이영표가 “패배가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자책했다.

지난 7일 이란과의 평가전을 마친 이영표는 소속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힐랄에 합류하기 위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출국전 인터뷰에서의 화두는 단연 이영표의 실수였다. 이영표는 이란과의 평가전에서 전반 35분 한 차례의 패스 실수로 실점의 빌미를 제

공했고 결국 한국은 0-1로 패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이영표의 눈물’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울지는 않았다”며 말문을 연 이영표는 “이란전에서 원하던 내용과 결과가 있었는데 실수 때문에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한 선수의 실수가 경기를 망친 전형적인 사례였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전술적으로 준비를 잘 했다. 경기 초반에는 기회도 잡았고 유리하게 끌고 갔지만 실점 후 이란

이 수비 라인을 뒤로 내리면서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며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비판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영표는 “평가전을 통해 이란이 강팀이고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아시아권에서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 원하는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시스

KIA 신인 8명 입단 계약 완료

KIA타이거즈가 2011년도 신인선수 8명과 계약을 완료했다.

KIA는 9일 오전 1라운드 지명선수인 한승혁과 계약금 1억8천만원, 연봉 2천400만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2라운드 홍건희와는 계약금 1억4천만원, 연봉 2천400만원에 계약을 맺는 등 2011년 신인선수 8명과 계약을 마쳤다. 한편 9라운드에서 지명된 박태원은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다.

신광호 기자 sgh@namdnews.com



돌파기도
9일 오후 서울 잠실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0 세계군인체육대회 축구 선수권대회 한국-미국전에서 이영표(한국)가 골키퍼를 시도하고 있다. /뉴스시스

한국, 멕시코 꺾고 8강 확정

U-17여자월드컵...북한 ‘기사희생’

17세 이하(U-17) 여자축구대표팀이 월드컵 8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9일 오전(한국시간) 트리니다드토바고 스카보로의 드와이트 요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월드컵 B조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4골을 몰아친 끝에 4-1 대승을 거뒀다.

남아공전 3-1 승리에 이어 2연승을 달린 한국은 승점 6점을 확보, 독일(2승)

과의 예선 마지막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8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여민지-김다혜를 최전방에 배치한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한국은 멕시코의 거센 공세에 밀려 힘든 경기를 펼쳤다. 여러 차례 실점 위기를 넘긴 한국은 전반 27분 김나리의 골로 앞서나갔다. 김나리는 오른쪽 측면에서 여민지가 올려준 공을 달려들며 머리를 갖다대 선제골을 터뜨렸다.

멕시코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멕시코는 10분 뒤 페르난다 피나의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나 한국은 3분 뒤 다시 앞서나갔다. 골의 주인공은 ‘제2의 지소연’으로 불리는 여민지였다.

여민지는 오른쪽 측면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정확히 오른쪽 발로 슈팅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이번 대회 3호골. 근소한 리드를 지키던 한국은 후반 31분 김다혜의 골로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편 ‘디펜딩챔피언’ 북한은 칠레를 3-1로 꺾고 첫 승(1패)을 신고했다. 북한의 8강 진출 여부는 홈팀 트리니다드토바고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따라 결정된다.

뉴스시스

문성민 · 박철우 “AG 3연패 쏜다”

남자 배구대표 12명 엔트리 발표...여자도 확정

아시아게임 3연패를 노리는 배구대표팀의 면면이 공개됐다.

대한배구협회는 지난 8일 2010광저우아시아게임에 나서는 12명의 최종엔트리를 발표했다.

대표팀에는 좌우 쌍포 문성민(24·현대캐피탈)과 박철우(25·삼성화재)를 중

심으로 베테랑 최태웅(34·현대캐피탈)과 석진욱(34·삼성화재) 등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다.

센터진에는 이선규(29) 대신 부상에서 회복한 윤봉우(28·이상 현대캐피탈)가 새롭게 합류했다. 12명의 선수 중 병역 미필자는 신영수(28), 한선수(25), 김학

민(27·이상 대한항공), 신영석(24·우리캐피탈), 박철우 등 5명이다.

아시아게임 3연패 달성이라는 중책을 짊어진 신치용 감독(55)은 다음 달 13일부터 프랑스 블로리스에서 막판 담금질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박삼용 감독(42)이 이끄는 여자대표팀 역시 1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정대영(29·GS칼텍스)과 황연주(24·현대건설)는 모처럼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됐다.

뉴스시스

오늘의 운세

2010년 9월 10일(음력 8월 3일) 쑤훅 금요일

해정(慧正) 시주&타로 010-7659-8654 http://deniers.ohpy.com



<p>子</p> <p>오늘의 일진은 순상하던 일들이 조만간 어려워지니 빨리 끝낼이 상책이다.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시일을 다루니 빠른 시일내에 끝맺음을 하는 것이 낫할 것이다.아래로에 직면하기전에 비해 움직이라.</p> <p>84년생 : 상사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오후에 좋은일이 있으리라.</p> <p>72년생 : 친구와의 구설이 일을 더 힘들게 하니 친구와의 갈등을 풀리라.</p> <p>61년생 : 영등한 생각으로 일을 망치는 수가 보이니 하던일에 열성을 더하라.</p> <p>49년생 : 생각지도 않던일이 생겨 어렵게 만드니 친구가 해결해 준다.</p>	<p>午</p> <p>오늘의 일진은 경영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먼저 회하니 쳐다만 본다.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 닭 @전 개가 지붕다 보는 격이 될것이다.때가치기 앞을려면 먼저 분발하라.</p> <p>78년생 : 재물 운이 스스로 오는 격이니 금전 문제는 해결되나 마음은 문제다.</p> <p>64년생 : 애타게 움직이면 불리하니 속속이고 바라만 볼이 상책이다.</p> <p>54년생 : 문서 관계는 오후에 좋은 소식이 올것이니 기다려라 낫할리라.</p> <p>42년생 : 너무 많은 생각은 신경을 피곤하게 하고모든 건강을 해친다.</p>
<p>丑</p> <p>오늘의 일진은 기회가 만만치 아니 어찌 아릅답지 않으리요.모든일이 여의하니 만사가 화평할 것이다. 망동하면 운기를 그르칠 우려가 있으니 자중하여 운기를 맞이하라.</p> <p>89년생 : 좋은 물건이 생기는 운때 마음에서 드는 의욕이 생기니 갈등도 풀리네.</p> <p>73년생 : 구설 시비 수가 크게 비추니 피해 나간이 현명하치사라.</p> <p>61년생 : 경계망동을 삼가고약간의 휴식을 취함이 뒷날을 위하여 낫할리라.</p> <p>49년생 : 과한 욕심만 삼가면 들어올 만큼 들어오는 금전 운이다.</p>	<p>未</p> <p>오늘의 일진은 살고초려의 마음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쉽게 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 정성을 다해 행하라.</p> <p>79년생 : 금전 운은 옹동 정도이고 친구인지 사랑인지가 갈등이다.</p> <p>64년생 : 애타게 움직이면 불리하니 속속이고 바라만 볼이 상책이다.</p> <p>54년생 : 문서 도장 서명 등을 조심하지 않으면 고생을 당할리라.</p> <p>43년생 : 깊은 생각으로 힘든일은 잘 해결되나 금전 문제는 어려운 시기이다.</p>
<p>寅</p> <p>오늘의 일진은 하는일이 들끓지 못하니 시비가 구름같이 일어난다.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운기가 불길하여 구설시비가 뜨르게 된다.배사 신중하길 바래니 망동은 금물이다.</p> <p>84년생 : 좋은 친구와의 대화가 어려운 갈등을 풀어주는 묘약이 된다.</p> <p>74년생 : 마음 맞는 사람과 술좌석을 대하니 어려운일이 열리는 상이다.</p> <p>62년생 : 밑조심을 해야 이길 수 있는 운세라 영등한 사람의 시비를 조심하라.</p> <p>50년생 : 조그마한 이익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더 좋은일이 있으리라.</p>	<p>申</p> <p>오늘의 일진은 지랑하지 마라. 밤새 안방이다. 운기가 좋다고 과신하다 화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 경계망동 하지 말고 지중하니 낫할 것이다.운인지중이 낫함을 유지하라.</p> <p>81년생 : 잠만 찾으면 먹을 복이 있는 날이라 술잔이 좋은일이 생기리라.</p> <p>68년생 : 남의 하는일에 지나친 간섭은일을 힘들게 하는 길이다.</p> <p>58년생 : 몸이 불편하면 만사가 괴로운 것이니 심신을 연계를 돌보라.</p> <p>44년생 : 애타게 움직이면 너무 간섭하면 일이 거꾸로 돌아간다.</p>
<p>卯</p> <p>오늘의 일진은 천한 사람이 해를 끼치니 사람을 조심하라. 가까운 이로 인해 손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게 된다.배사 신중을 기할 것이니 자중하여 행하라.</p> <p>87년생 : 어려운일은 친구와 상의하고합쳐가 나가면 풀린다.</p> <p>77년생 : 정신이 혼미한일진이니 중요한결정은 뒤로 미루는 것이 낫다.</p> <p>63년생 : 친구와 좋은 시간을 가져봄이 일을 해결하는 길이다 되는 것이다.</p> <p>51년생 : 옛 일도 되풀이됨이 현재의 어려움을 풀어내는 열쇠가 된다.</p>	<p>酉</p> <p>오늘의 일진은 새로운 것을 바라보면 수심을 먼저 못타라.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고수하는 것이 낫할 것이니 경험이 없는 일에는 침사라 행하지 마라. 화를 입을까 두렵다.</p> <p>81년생 : 실물수가 크게 보이니 귀중한 물건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p> <p>69년생 : 열성을 다하지 않은일은 힘든 법이고 유익한 만큼의 이익은 없다.</p> <p>57년생 : 황재수가 아닌 좋은 의욕이 생기면 운이 나빠질일이 낫할리라.</p> <p>45년생 : 힘들고 머리물어 뜨게 하던일이 해결되니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p>
<p>辰</p> <p>오늘의 일진은 허욕에 해가 있으니 남의 것을 탐내지마라.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반수를 지키지 않고 과욕을 부리게 되면 화가 미칠 것이니 망동하지 말고 지중하여 행하라.</p> <p>76년생 : 겨우 갈등만 면하는 것이지만 완전한 해결이 아니니 계속 전진하라.</p> <p>64년생 : 어려움 중에 나를 돕는 자가 나타날 것이니 북쪽을 찾아 보라.</p> <p>52년생 : 구설 시비를 조심하고 금전 운은 좋으니 투지도 가능하다.</p> <p>40년생 : 신들바람이 불어오는 격이라 출타하면 큰 이익이 있으리라.</p>	<p>戌</p> <p>오늘의 일진은 구름은 연연히 떠도나 내마음은 결정이 어렵다.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순조로운운을 얻지 못하니 심신에 근고함을 느끼게 된다. 마음의 결정이 터지니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리라.</p> <p>82년생 : 어떤일에 전파리만 굴리지 않는다면 귀인이 도움을 줄 것이다.</p> <p>70년생 : 소신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면 즐거운 하루가 되리라.</p> <p>58년생 : 공영하 어지러운 마음을 잘 다스리면 기분 좋은 자리가 마련된다.</p> <p>46년생 : 골머리 아픈일이 생길 조짐이 보이니 사전에 차단함이 좋으리라.</p>
<p>巳</p> <p>오늘의 일진은 흥분대결이라 이외의 재물을 얻을 운이다.가게에 머무르는 것보다 출행하여 구하면 많은 것을 취할것이니 역마가 발동하여 나이가 구려라 낫할 것이다.</p> <p>77년생 : 인연 운행을 해야 재산물을 받게 될 것이다.</p> <p>65년생 : 애타게 움직이면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보면 힘든일을 열어가리라.</p> <p>53년생 : 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어려운 고비를 잘넘기게 된다.</p> <p>41년생 : 자기만만 금전 운이니 공한 중에 용인이 들어오는 구.</p>	<p>亥</p> <p>오늘의 일진은 모든 일이 귀인이 나서서 풀려주고 함의 되지않던 일이 된다.도모하는일이 있다면 귀인의 도움이 만사가 여의해 지나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은 스스로 하라.대만해지기 쉽다.</p> <p>83년생 : 다름을 피하면 어려운 일을 친구가 해결해주고 갈등도 풀이된다.</p> <p>71년생 : 금전 운이 풍백에 비추니 지금은 동쪽에서 귀인을 찾아라.</p> <p>59년생 : 과음은 정신을 신만하게 하는 것이라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리라.</p> <p>47년생 : 반성하는 마음으로 일하다부러운 어려움이 도사려 해결되리라.</p>